

2019년 5월 18일(토)

420장 너 성결키 위해

- 1 너 성결키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안에 있어 늘 성경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 2 너 성결키 위해 네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네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 3 너 성결키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 4 너 성결키 위해 늘 기도하며 네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 1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되시니
큰 환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 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 2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 밖에 없도다
힘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 3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대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 멘

5월 20일(월) 기도 담당 : 오충일 집사

이른아침예배

	인도 : 엄재광 목사
예배를 여는말	인 도 자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같 이
찬 송	420장 다 같 이
기 도	이경승 집사
성 경 봉 독	이사야 50:2~10 인 도 자
찬 양	새벽찬양대
설 교	『누구냐』 엄재광 목사
기 도	준비된 기도문을 따라 다 같 이
찬 송	585장 다 같 이
축 도	설 교 자

☞ 오늘의 말씀 < 이사야 50:2~10 >

2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하여 죽으리라 3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베로 덮느니라 4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 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
아듣게 하시도다 5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
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6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 뱀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7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므
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딪듯 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8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
까이 계시니 나와 다툰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9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
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짐
이 그들을 먹으리라 10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
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
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새문안교회 이른아침예배 기도문

2019년 5월 18일(토)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주도 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복된 날을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광야 같은 세상에 살면서, 원치 않게 물들었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사 깨끗하게 씻어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주님의 능력의 팔은 짧지 않으며, 그 어떤 방해 속에서도 능히 구원하실 수 있으심을 확신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 더 견고하게 붙잡아 주시고, 영적 담대함을 가지고 거룩한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저희되게 하옵소서.

내일 드러질 모든 예배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특별히 오랫동안 기도했던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들을 초청하는 기쁨나눔주일로 드리오니 초청하는 자나 초청받은 자나 모두가 큰 은혜 받는 가운데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시간'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시기로 약속된 영혼들을 원수 마귀의 방해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담임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사 허락하신 목회비전을 주 은혜가운데 온전히 이루도록 도와주옵시고, 교회를 사랑하며 귀하게 섬기시는 모든 분들 위에도 한량없는 주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 주옵시고,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하수같이 이 땅 방방곡곡에 흘러넘치게 하시며, 오직 주님께만 속한 나라, 오직 주님만 다스리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또한 새문안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만을 모시며 예수님만을 섬기는 복되고 즐거운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